

“템플스테이 국가 사업으로 체계화 해야”

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가치평가 정책세미나 개최

템플스테이 도입 10년을 맞아 템플스테이 개선점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정부차원에서 마련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선)은 10월 2일 국회 국회의사관 제1소회의실에서 ‘템플스테이 가치평가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주호영, 정세균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템플스테이의 사회공익적 가치, 힐링프로그램으로서의 경쟁력, 여가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 등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템플스테이 전문가 평가 높아

이날 템플스테이의 사회공익적 가치평가와 발전방향을 발표한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문가 및 내부 연구원 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템플스테이 개선점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템플스테이의 경쟁력에 대해 “체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약 85%가 템플스테이 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며 전문가들의 평가가 높음을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하지만 템플스테이 공식 지정사찰에 대해서는 ‘현재수준이 적당하다’와 ‘소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으로 증대 필요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

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템플스테이 평균 참가 금액은 1박 2일에 5만원으로 일반 숙박여행인 25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프로그램에 따라 요금 책정이 다양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템플스테이 개선점으로 ‘프로그램 다양성(특화) 부족’이 25%로 가장 크게 차지하였으며, 홍보마케팅 부족, 운영실무자의 전문성, 편의시설 부족 등 시설에 대한 불편함 보다는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요소의 개선을 요구하는 응답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개선점을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템플스테이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아 한국관광을 한 차원 높이는 상품이자 국민의 여가생활에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한국관광 가치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템플스테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

템플스테이 국가적으로 기여 가능

이승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템플스테이가 힐링프로그램으로 심신치유 분야에 특화된 만큼 이런 점을 국가 시스템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템플스테이는 힐링프로그램으로 심신치유와 관광,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평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0월 2일 국회의사관 제1소회의실에서 템플스테이의 사회적 가치평가 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가하고 “템플스테이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미 갖고 있는 장점들을 국가 시스템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템플스테이가 정부의 정신건강의료시스템과 연계하면 생활밀착형 정신건강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GDP의 2%를 차지하는 만큼 국가적으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동우 대구대 호텔관광학과 사회심리학과 연계해 템플스테이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고 교수는 “나관, 희망 등의 긍정요소가 사회자본으로 활용되는 긍정심리자본 이론이 있다”며 “이를 템플스테이 프

그램에 적용하면 국민정서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 이어 강도형 서울의대 정신과학교실 부교수, 박재석 한국관광공사 관광상품팀장, 박용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차장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또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정갑윤 국회정각회장 등 정관계 20여 명이 참석했다.

문화사업단장 정선 스님은 “템플스테이가 보다 많은 이들에게 행복의 씨앗을 나눠 줄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개신교 예찬론자가 國史를 책임진다니

유영익 교수 종교편향 우려 속 국편위원장 취임

특정 종교 편향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유영익 한동대 석좌교수가 신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10월 1일 국사관 대강당에서 취임했다.

유 교수는 그간 각종 저서와 기고문 등에서 특정 종교에 편향된 역사인식을 드러내 왔다. 그는 기독교 국가건설을 표명할 정도로 천기독교적 성향을 지닌 이승만 前 대통령을 ‘대한민국 건국에 절대적으로 공헌한 대통령’으로 평가하면서 그의 기독교 장려 정책을 칭송해 왔다.

실제 유 교수는 그동안 각종 기고문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행해(非徹)화시키고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한 것에 대해 독실한 신자의 모범이라고 찬사하기도 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조계종 종평위)는 “이승만 정부의 기독교 편향 정책에 대한 학계의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고 상반된 가치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역사학자로서의 자질조차 의심스러운 지경”이라며 “잘못된 종교관과 편향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상식을 저버린 처사다. 또한 이러한 사람을 대한민국의 역사를 관장하는 곳의 책임자로 세운다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조계종 종평위는 유 교수의 취임에 앞서 “임명을 철회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종평위는 입장문에서 “편향된 종교인식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각계의 우려를 수렴해 유영익 교수의 신임 국사편찬위원장 내정에 대해 재고하기 바라며 지금까지도 당장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종자연 김병철 高大 총장 등에 공개 질의

지나해 인권위 연구 방해 행위 물어

종교자유정책연구소(원장 박광서, 이하 종자연)가 미래목회포럼의 일간지 광고와 관련해 고려대 김병철 총장과 카이스트 주대준 前 부총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는 미래목회포럼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종자연의 연구 용역을 즉각 취소하라’는 제목의 광고를 지나해 7월 3일자 조선일보에 실은 것에 따른 것이다.

종자연은 “고려대학교 김병철 총장과 카이스트 주대준 前 부총장은 미래목회포럼 광고 내용에 동의하는 뜻에서 자신의 소속 직함과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이라 할 수 있는 고려대와 카이스트 두 대학의 공적 직함을 이용해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표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공개 질의서를 보낸 이유를 밝혔다.

종자연은 질의서를 통해 고려대 총장의 직함을 미래목회포럼 광고에 학교의 동의 없이 올린 것에 대해 지적했다. 종자연은 “개신교계의 일반적 주장을 홍보하는 일간지 광고에 ‘총장’이라는 직함으로 공개적으로 연명을 참가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종자연은 부적절한 종교 편향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켜온 카이스트 주대준 前 부총장에 대해서도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종자연은 질의서에 “공인이나 공직자라면 이러한 최소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종교적 예의범절에 부합하는 행위인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정혜숙 기자

조계종 민주본, 조선족학교 지원한다

9월 26일 교류협력서 채택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조선족 중학교와 교류협력 의향서를 채택하고 지원사업에 나선다. 민주본은 9월 26일 북중경지역 평화기원순례 일정의 일환으로 연길 제10중학교를 방문 양측간 교류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채택했다.

연길시 제10중학교는 18개의 학급으로 구성된 조선족중학교다. 의향서 채택에는 박종률 부교장, 조계종 민주본 집행위원 제정 스님(민주본 집행위원)이 양측 대표로 참여했다.

정혜숙 기자



민주본 집행위원 제정 스님과 연길 10중학교 박종률 부교장이 9월 26일 협력서를 채택하고 있다.

유진룡 장관, 부석사 불상 반환 발언 일파만파

9월 27일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발언에 불교계 반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부석사 불상 반환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주요언론들은 유진룡 장관이 9월 27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시모무라 하루코 일본 문화부차관과 가진 양자회담 중 부석사 불상을 일본에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시모무라 장관은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불상 반환을 요청했고 유 장관으로부터 “한국 정부 차원에서 반환을 위해 제대로 대응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산부석사관세음보살좌상반환협의회(이하 관음상반환협의회)는 즉각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하 관음상) 일본 반환 발언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 여론 31면>

관음상반환협의회는 “약탈로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아 오는데 선봉에 서야 할 국가수장인 유진룡 장관이 직분과 현실을 망각하고 일본 반환을 언급했다”며 “국보를 팔아먹은 문화매국노 수장이나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조계종도 9월 30일 부석사 금동보살좌상의 일본 반환 문제와 관련한 논쟁을 통해 “부석사 불상은 복장물 기록 등으로 때 정당한 방법으로 반환했다고 보기 어렵기에 정부는 일본에 입수 경위 규명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문화재 피해국이기에 때문에 문화부 장관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일본에 약탈·도난 당한 문화재 환수를 위한 정책 수립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 장관은 “‘사법당국



지나해 일본 쓰시마의 한 사찰에서 절도돼 한국으로 반입된 서산부석사불상.

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유 장관은 9월 28일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문 서명 후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서울에서 영광까지 도보하며 탈핵 행진

불교생명윤리협회 탈핵희망 국토순례 참여

불교생명윤리협회가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에 참여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전남 영광까지 394.9 km의 거리를 11월 11일까지 도보순례로 완료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불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 법운 스님, 집행위원 이도흠 한양대 교수,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불교생명윤리협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순례단은 “핵발전소가 하루빨리 폐쇄되기를 바라는 모든 이의 염원을 담아 한 걸음 한 걸음 뜨거운 마음을 담아 걸어간다”며 “2014년 3월 1일에는 부산고리핵발전소 앞에 모여,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 핵발전소부터 폐쇄하기를 온 국민의 힘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불교생명윤리협회는 지난 6월 6일~9월 7일 탈핵 순례 행진에 참여해 탈핵반대를 호소해왔다.

정혜숙 기자

2013 동두천세계평화기원 청소년영화축제 성공기원

6.25 희생자 추모 및 위령 대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 까지는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우리 민족의 불굴의 정신과 생명을 아끼지 않는 선열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봉행 합니다.



봉행위원장 동봉 대정사



대외장 천강 대정사



준비위원장 일웅 대정사



홍보국장 유원 스님

포교국장 유마 스님

일자 : 2013년 10월20일 시간:오전11:00~오후:17:00까지
 장소 :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주소 :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162-10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광장
 주최 : 동두천세계평화기원 청소년영화축제 조직위원회
 주관 : 국민대통합기도회 준비위원회